

문예지 창간으로 문학계에 봄기운 물씬

《새로운》《한국문학평론》 등 속속 창간 ... 뚜렷한 주제로 새로운 양상

새 봄을 맞아 문예지들이 속속 창간되어 문학계에 활력을 주고 있다. 올봄 나온 《새로운》《한국문학평론》《21세기문학》에다 지난 가을 선보인 《라뿔름》은 각기 독특한 개성을 내세우고 있다. 계간 문예지는 《창작과비평》이후 겨울호를 창간호로 삼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으나, 이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 창간호는 '1997년 봄호'로 계간지의 외양을 갖고 있으나, 계간에서 반년간·무크에 이르기까지 간행 주기에서 편차를 보인다. 또 문예지마다 뚜렷한 주제를 내세웠다.

문예지와 출판사의 관계를 놓고 볼 때도 이들은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문예지의 성공을 발판삼아 문학출판에 뛰어드는 것이 상례였고, 단행본 출판에서 기반을 다진 출판사가 토대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문예지를 만든 경우도 있었다. 이제는 문예지와 출판사를 동시에 출범시키는 방식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문학의 세계화 표방

시험대에 오른 주인공은 《21세기문학》(도서출판 이수)과 《라뿔름》(도서출판 문화공간). 《21세기문학》은 경제부총리를 지낸 소설가 김준성씨가 발행인이다. 도서출판 이수는 그가 회장으로 있는 이수그룹 홍보실에서 실무를 담당한다. 잡지의 편성은 이태동 주간과 서원동 고문이 책임을 맡았다.

《21세기문학》은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표방한다. 창간사에서 "한국내 지성을 총동원해 세계의 우수 문예지와 겨룰 수 있는 일류 문예지를 창간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전단계로 획기적인 편집을 통해 침체에 빠진 문단에 생기를 불어넣고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킬 작정이다. 창간호에는 전환기 우리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바를 기쁘게 보는 창간 특집좌담을 비롯한 기획물과 창작 및 비평을 빼곡히 담았다. 거의 6백쪽에 육박하는 분량은 계속 유지할 생각이다. 반년간이므로 이만한 부피를 지녀도 그다지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노력해서 잘 만들었다"는 주위의 반응을 전하는 김상묵 차장은 아직 단행본 출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한다.

《라뿔름》은 여성문학을 내세우는 문예지. 지난해 가을 창간호 이후 통권 3호가 나왔

새봄에 문예지들이 속속

창간돼, 문단에 활력을

주고 있다. 올봄에 선보인

《새로운》《한국문학평론》

《21세기문학》과 지난 가을

나온 《라뿔름》은 각기

독특한 개성으로 뚜렷한

주제를 내세우면서

독자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다. 소설가 손장순씨의 주도로 탄생한 이 잡지는 "페미니즘의 확립과 문화의 오도 내지 오류와 부조리한 현상을 개선하는 것"이 일차 목표다. 나아가 더욱 충실한 내용을 담아 고급 문예지로 키워나갈 생각도 갖고 있다. 박철희·강은교·권영민·서영은·권택영씨 등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해외 담당 위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색. 소설가 김지원씨가 미국 쪽을, 박영숙씨가 영국 쪽을 담당한다.

'라뿔름(La Plume)'은 붓대를 뜻하는 프랑스말. 컴퓨터 글쓰기가 보편화한 시대에 깃털을 펜촉으로 쓰던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려는 의미다. 치열한 작가의식을 되찾아 위엄을 갖추려는 문학에 대한 충정도 깃들어 있음은 물론이다. 3호째 나오면서 유일한 여성문학 계간지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라뿔름》은 여성언론의 역할도 자임하고 있다. "독자들의 관심에 부응해 칼럼·연론비평란을 확충한다. 필자도 다변화하겠다. 창작 쪽에서는 소설에 비중을 두겠다"고 손장순씨는 밝혔다. 문화공간 역시 단행본 출판에 뛰어든 생각은 아직 없고, 연재한 장편소설이 호응을 얻을 경우 선별해서 펴낼 계획이다.

30년 전통의 범우사와 기획력이 돋보이는 김영사가 문예지를 창간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외국 고전문학과 해외 베스트셀러에 주력한 두 출판사가 국내 문학에도 눈을 돌리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이기 때문이다. 두 출판사 역시 문학출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새 봄을 맞아 문예지 창간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문학평론》(범우사)은 한국문학평론가협회(회장 장백일)가 펴내는 비평 전문 계간지. 동시대 창작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성실한 비평작업의 수행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3개월 동안 발표된 모든 작품을 면밀히 검토해 문학적 성취도에 따라 독자에게 권장할 만한 작품목록을 제시한다. 주간은 중견 평론가 임현영씨가 맡았고, 편집실무는 김경원·김진희·신선옥·이창민·이현식씨 등 30대 초반 소장 연구자들 몫이다.

실험성은 높이 평가

창간호는 특집기획 〈이 시대의 비평이란 무엇인가〉 등으로 다채롭게 꾸몄는데, 평론가들을 상대로 한 설문 '평론가 163명에게 듣는다'가 특히 눈길을 끈다. 문학 관련 신작을 한달 얼마 정도 읽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매우 실망스럽다. 응답자의 50%가 신간 시집과 소설을 한달에 한권 겨우 읽고 있는 실정이다. 이론비평을 정련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의 섭취는 고사하고, 실천비평의 재료가 되는 창작품을 읽어내기도 빠듯한 것이 우리 비평의 현실이다.

그런 까닭에 "기존의 등단인만이 아니라 최근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한국 및 외국문학 전공자는 웬만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평론가'의 자질을 갖췄다"고 보는 창간사의 평론가 자격기준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새로운》(김영사)은 지난해 9월 나왔어야 할 부정기간행물이다. 때를 놓쳐 이 봄에 나온 탓에 담고 있는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주목을 받고 있다. 창간호는 특집으로 새로운 글쓰기를 향한 젊은 문인들의 모색을 담았다. 몇 개의 글은 시의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게재하지 않았다. 특집을 뒤로 돌리고, 소설을 앞세운 것도 창간이 지체된 여파.

《새로운》의 가장 큰 특징은 젊은 작가들의 안마당이라는 점. 64년에서 75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 주축을 이룬다. 강상희·차창룡·김종욱·김연수·송경아씨 등이 편집동인으로 참여했다. "어떤 이념을 추종하거나 특별한 방향성은 없다. 공격적인 언사는 지양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책임기획자 함명춘씨는 말한다.

백과사전적인 지식과 촌철살인의 통찰을 앞세운 지사적이고 예언자적인 문학은 죽음을 맞았고, 문학도 다양한 문화양식과 호혜평등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창간사의 주장은 낯선 논리가 아니다. 오히려 '도전과 역동적인 상상력'에 대한 믿음을 지닌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학의 희망을 감지한다. 김영사의 한국문학 부문은 진행중인 '새로운 작가 시리즈'에만 머물러 있다.

문예지 창간을 보는 시각은 두가지로 나뉜다. 좀 두고 보자는 유보적인 입장과 실험성을 높이 사는 적극적 지지자 그것. "적어도 2~3년 동안 어떻게 꾸려나가는지 살펴봐야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견해와 "이제는 5년이고 10년이고 머리 싸매고 잡지를 낼 이유가 없다. 당대의 문화현상을 반영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견해가 공존한다.

— 최성일 기자